

【토론】

【討論】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일본 키타큐슈여성의 모임」의 활동
「高齡社会をよくする
北九州女性の会」の活動

도미야스 요시코

富安 兆子

일본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키타큐슈여성의 모임 대표

日本 高齡社会をよくする北九州女性の会 代表

「高齢社会をよくする北九州女性の会」の活動



富安 兆子

日本 高齢社会をよくする北九州女性の会
代表

多様な実践活動

高齢社会の問題を世に問うために、様々な切り口で発足当初から毎年開催して来たシンポジウム、高齢者の心理・生理・介護などと合わせて、次世代育成の理念やノウ・ハウを学ぶ一連の少子高齢社会市民講座や女性問題に関する学習会などをベースに、資金づくりを兼ねた社会的メッセージ性の高い映画の上映会のほか、NPOとして、高齢者のためのホームヘルプ活動、配食サービス、子育て支援のグランマ活動、時代が要請するテーマに添った各種調査活動など、思いつくかぎりのことを実践し継続してきた。これらの活動がしばしばマスコミに取り上げられることによっても地域社会に一定の影響を持ちえたといえる。

介護保険関連の活動

介護保険制度の導入に際しては、家族介護から社会的介護への移行によって介護地獄を解消し、女性が働き続けることを可能にする制度と受け止め、全国的な動きと連動しながら、その制度の必要性を地域社会に訴え続けた。制度導入決定後は、これをよりよいものとするための活動を行なってきた。導入前年の敬老の日には「介護保険110番」を設けて制度に対する市民の不安や要望を直接聞き、また、アンケート調査をするなどして会員や市民の声を集約、それをもとに保険者である北九州市の介護保険関連施策の展開にも一連の提案をおこなった。

<特養調査>

2000年4月から介護保険制度が実施され、その眼目として「措置から契約へ」のキヤッチフレーズはあっても、契約するための選択を可能にする情報が十分提供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かった。そこで、介護サービスを選ぶ上での市民の情報不足を補うために、介護保険に関わる施設や在宅介護支援事業者にアンケート調査をおこない、その結果を冊子にまとめて、市民にとって必要且つ具体的な情報の提供をおこなった。さらに2002年には新たな情報を加え『特別養護老人ホーム・ガイドブック』として出版した。

<ヘルパー調査>

北九州市の場合、サービス量の確保はかなりのレベルに達していると思われたので、サービスの質の充実に力をつくすことが必要と考え、2000年8月、在宅介護の要ともいべきヘルパー調査に着手、結果の概要について2001年3月のシンポジウムで発表、調査の全体像を『介護保険でヘルパーの働きはどう変わったか』にまとめた。この調査で見ると、北九州市の場合、介護保険導入に際しての急ごしらえのヘルパー養成の影響を受けてベテランヘルパーが後退し、経験の浅い登録型のヘルパーが主流を占めていること、ヘルパーの働く条件はきわめて厳しく、大部分のヘルパーの意識もプロと言うよりは「ボランティア型」であることが数値を通して明白になった。その背景には、社会全体の評価としての家事援助サービスの軽視がある。日常生活をしていくうえでこまごまとした家事がいかに重要で、しかもどんなに大変であるかという視点が抜け落ちているということは、制度をつくる側にいる人の多くに「女性の役割としての家事」への軽視があったからにはほかならない。介護保険が従来の施設介護中心から在宅介護へと軸足を移す制度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高齢者の在宅生活を支える担い手でありその多くが女性であるヘルパーの社会的評価の低さや待遇の貧しさなどの問題が改善されないままであることをこの調査は明らかにした。

<グループホーム調査>

2000年の国の「ゴールドプラン21」に基づき、痴呆性高齢者の生活の場としてグループホームが整備され介護保険制度による在宅サービスメニューの一つとして事業化されることになった。「ポストの数ほどグループホームを」と願う声に応える形で北九

州でも多くのグループホームが誕生したが、その内容についての情報は市民にとって十分といえるものではなかった。会にも寄せられる「虐待があるのでは?」とか「対応が不十分なのでは?」などの、情報不足から生ずる市民の不安を払拭し風通しをよくしてグループホームの実情を市民に知ってもらうために、北九州市内 28 グループホームへのアンケートをもとに会員が訪問して情報を収集し、2年次に亘ってシンポジウムを開催、その結果 2004 年 7 月『北九州市内グループホーム・サービスガイド』として出版した。

プロフィール

富安 兆子（とみやす・よしこ）

日本 高齢社会をよくする北九州女性の会代表

1934年 日本静岡県伊豆生まれ。

日本 青山学院大学文学部卒業。

日本 北九州市社会教育委員、福岡県婦人問題懇話会委員、福岡県総合計画審議会委員、福岡家庭裁判所調停委員などを歴任。

現在 日本 社団法人 北九州市障害福祉ボランティア協会理事

日本 社会福祉法人 北九州いのちの電話理事

日本 社団法人 北九州活性化協議会理事

日本 財団法人 アジア女性交流・研究フォーラム理事

日本 北九州市立大学／西南女学院大学非常勤講師

これまでに世界 30 数カ国を訪れ、女性、高齢者、青少年の問題について調査研究

これらの調査報告書多数

主要共著書

『地域福祉システムを創造する』（ミネルヴァ書房）

『女の企業が世界を変える』（啓文社）

『ジェンダーを学ぶ』（海鳥社）

『アジアの社会変動とジェンダー』（明石書店）

『私のまちの介護保険』（ミネルヴァ書房）など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일본 키타큐슈여성의 모임」의 활동



도미야스 요시코

일본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키타큐슈여성의 모임
대표

다양한 실천활동

고령사회의 문제를 공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창구로서 발족당초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심포지움, 고령자의 심리·생리·개호등과 맞추어 차세대 육성의 이념, 노우하우를 배우는 일련의 少子高齡사회시민강좌, 여성문제에 대한 학습회등을 기초로, 자금만들기를 겸하여 사회적 메시징성이 높은 영화의 상영회등, NPO로서 고령자를 위한 홈헬프활동, 배식서비스, 자녀양육의 지원의 그랜머활동, 시대가 요청하는 테마에 따라서 각종조사활동 등, 필요한 부분의 실천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활동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개호보험관련의 활동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가족개호에서 사회적개호로의 이행에 의한 개호지옥을 해소하여 여성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 전국적인 운동을 해나가면서 그 제도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호소해 왔다. 제도 도입 결정후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위해 활동을 해왔다. 도입 바로 전해의 경로의 날에는 「개호보험 110 번」을 만들어 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안, 요망을 직접 묻고, 또한 앙케이트조사 등을 실시하여 회원,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이것을 기초로 보험자인 키타큐슈시의 개호보험관련시책의 전개에도 일련의 제안을 하였다.

<특별양호노인홈 조사>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고 메인이 되는 「조치에서 계약」의 캐치프레이즈는 있어도 계약하기 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상태가 아니었다. 여기서, 개호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시민의 정보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개호보험에 관한 시설, 재가개호지원사업자에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책자로 정리하고, 시민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실시해왔다. 더욱이 2002년에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인 「특별양호노인홈·가이드북」으로서 출판하였다.

<헬퍼조사>

키타큐슈시의 경우 서비스양의 확보는 상당한 레벨에 달하고 있다고 보이며, 서비스의 질의 충실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2000년 8월, 재가개호의 중요한 부분인 헬퍼조사에 착수하여 결과의 개요에 대해 2001년 3월에 심포지움을 발표, 조사의 전체상을 「개호보험으로 헬퍼는 어떻게 변했는가」에 정리하였다. 이 조사에서 보면, 키타큐슈의 경우, 개호보험도입시에 급속하게 헬퍼양성의 영향을 받아 베테랑헬퍼는 후퇴하고, 경험이 적은 등록형의 헬퍼가 주류를 차지하는 점, 헬퍼의 파견조건은 더욱 엄하고, 대부분의 헬퍼의 의식도 프로라고 하기보다는 「볼런티어형」이라는 것이 수치를 통해서 명백해 졌다. 그 배경에는 사회전체의 평가로서는 가사원조 서비스의 경시에 있다.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속에서의 작은 가사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이 얼마나 힘든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빠져있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측의 많은 이들이 「여성역할로서의 가사」에 대한 경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이 종래의 시설개호중심에서 재가개호로, 지축을 이동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재가생활을 지키는 담당자로서의 많은 여성인 헬퍼의 사회적평가가 낮은점, 대우의 열악함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점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룹홈조사>

2000년의 국가의 「골드플랜 21」에 기초하여 치매성고령자의 생활의 장으로서 그룹홈이 정비되어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재가서비스의 메뉴의 하나로서 사업화되었다. 「우체통의 수만큼 그룹홈을」이라는 바램에 맞추어 키타큐슈에서도 많은 그룹홈이

탄생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시민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우리 모임으로도 「학대가 있지는 않습니까?」「대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등이 보내져 오며, 정보부족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안을 제거하여 그룹홈의 실정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기타큐슈시내의 28 그룹홈에 앙케이트를 기초로 회원이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2 년차에는 심포지움을 개최, 그 결과를 2004 년 7 월 『기타큐슈시내 그룹홈·서비스가이드』로서 출판하였다.

프로필

富安 兆子 (도미야스 · 요시코)

일본 고령사회를 좋게 하는 키타큐슈여성의 모임 대표

1934년 일본 시즈오카켄 출생. 아오야마학원대학문학부 졸업.

일본 키타큐슈시 사회교육 위원, 후쿠오카켄 부인문제간담회 위원, 후쿠오카종합계획심의회 위원, 후쿠오카켄재판조정위원 등 역임.

현재, 일본 사단법인 키타큐슈시장애복지블런티어협회이사,

일본 사회복지법인 키타큐슈생명의 전화 이사,

일본 사단법인 키타큐슈활성화협의회 이사,

일본 재단법인 아시아여성교류·연구포럼이사,

일본 키타큐슈시립대학, 西南여학원대학비상근강사 등.

지금까지 세계 30 여개국을 방문하여 여성, 고령자,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 지금까지의 조사연구보고서 다수.

주요공저서

『지역복지시스템을 창조한다』 (미네르바서방)

『여성 기업이 세계를 바꾼다』 (啓文社)

『젠다를 배운다』 (긴鳥社)

『아시아의 사회변동과 젠다』 (明石서점)

『우리지역의 개호보험』 (미네르바서방) 등